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활력 증진: 영국 커뮤니티 앵커의 시사점

다시 대두되는 '지역공동체' 및 '지역활력 증진'

- 최근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공간개발과 경제활력의 상생을 도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방분권적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
 - 이는 공간개발과 사회적 경제의 적극적 연계를 의미함과 동시에,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에 의한,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역활력 증진에 초점
- 그러나 실제 공간단위에서 지역활력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은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추진 되는 경향
 - 대표적으로 마을공동체활성화,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협력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강조
 - 시도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전국 63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34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77개소가 운영 중임
 - 즉, 한 지역에 각 사업별 코디네이터 및 중간지원조직 등이 혼재되어 있어 상호 연계를 통한 상생적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상당한 한계 노출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63	25	1	1	3	5	1	1	1	8	1	1	6	7	1			1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34	11		1	2	1		2		12	1		1		1			1
도시재생 지원센터	77	13	5	8	2	3	2	4	1	8	3	5	5	4	5	6	2	1

자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각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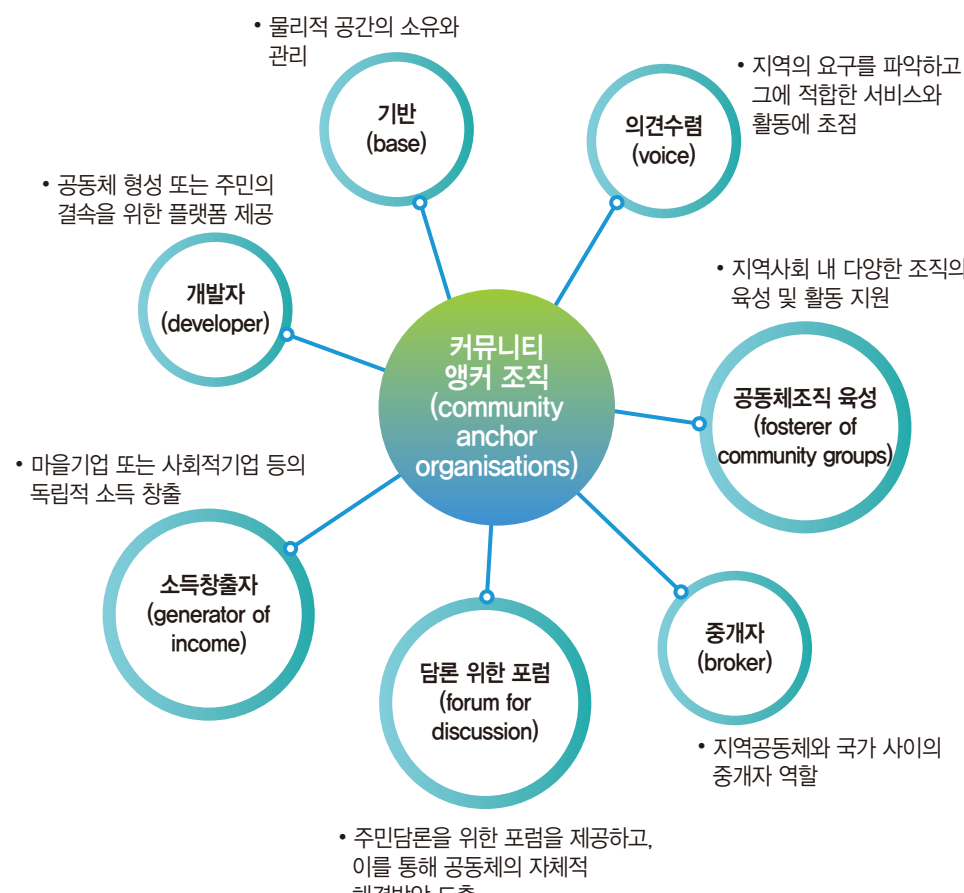
- 지역 내 다양한 조직 및 자원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 모색 필요
 - 지역 내 다양한 사업 및 조직의 연계, 상호 교류 촉진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와 문제점들이 공유 및 논의되고 공동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 필요
- 영국의 경우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기반 거점조직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지역의 문제와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지역 커뮤니티 앵커 모델(Community Anchor Model)에 대한 논의가 확산

영국의 커뮤니티 앵커 조직(Community Anchor Organisations)

- 커뮤니티 앵커란 '근린 재생 조직'으로서 지역 공동체 개발을 주도하고, 공동체의 이해를 대변하며 공공영역과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주체라고 정의(Thake, 2001)
 - 스코틀랜드 커뮤니티 연합(Scottish Community Alliance, SCA)은 커뮤니티 앵커의 특성을 ①지역공동체의 물리적 장소에 기반, ②다목적 기능, ③공동체 허브 제공, ④지역 리더십 향상, ⑤지역 서비스 계획 및 전달 지원, ⑥지역공동체 자산의 소유 및 운영 등으로 명시
 -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공동체 개발 신탁(community development trusts), 공동체 기반 주택 조합(community-based housing associations) 등을 들 수 있으며, 공동체 평의회(community councils), 사회적 기업 등의 조직도 포함 가능
- 즉 커뮤니티 앵커란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조직으로서, 지역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민관의 협력적 문제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재생 및 활성화를 견인하는 앵커 역할

〈커뮤니티 앵커의 역할〉

역할	내용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자 (service provider)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의 접근을 도움
커뮤니티 재정관리자 (community financier)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공동체조직의 지원을 통해 자본과 기회가 지방정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역 커뮤니티로 유입되도록 지원
커뮤니티 대변자 (community advocator)	공동체와 공공기관 사이의 중개역할을 통해 공공서비스 변화의 촉매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의 쟁점과 서비스에 관여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도움
커뮤니티 기반 지원자 (community infrastructure supporter)	지역의 다른 공동체 조직들의 조직화, 역량형성, 의사결정 및 참여기술의 향상 등을 지원
커뮤니티 역량강화자 (community empowerer)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적극적인 시민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



- 고반힐 주택 조합 사례(Govanhill Housing Association, GHHA)
 - 스코틀랜드 Govanhill 지역은 주로 노동자계층 및 다민족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외곽지역으로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노후 건물 및 슬럼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
 - GHHA는 지역의 세입자 및 거주자들을 대표하는 협의체로서 지역 내 2,200여개의 자산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으며, 약 50여명의 상근 직원이 근무
 - GHHA는 지역 공동체 형성, 세입자 및 지역주민의 참여, 마을기업 운영 및 개발, 직업훈련, 환경관련 프로젝트 수행, 업무공간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복지 서비스 및 저소득층과 소수 이민자들을 위한 옹호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
 - 또한 지역의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정부-지역커뮤니티 파트너십 (Govanhill Service Hub)의 구성조직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섹터에의 집중적 투자, 지역 재생사업의 계획 및 추진, 그리고 지역 주택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시사점

- 영국의 경우 지역에 기반한 자발적 주민조직, 비영리 단체 및 지역 내 공공기관 등은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발적·적극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새로운 지역커뮤니티 부문(community sector)을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추세
- 이러한 커뮤니티 부문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허브(hub)조직이 커뮤니티 앵커라고 할 수 있음
 - 커뮤니티 앵커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수렴하여 대표하는 리더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기반 수익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그 수익금을 지역으로 환원하여 선순환 고리를 마련
 - 물리적 지역 재생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복지, 교육, 재정 등 사회적·경제적 부문까지 고려한 통합적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함
- 문재인 정부의 지역활력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지역 문제의 주도적·자발적 해결을 모색하는 허브조직으로서 지역커뮤니티 앵커 육성 필요
 -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문제들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지역 공동체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여 제도화
- 커뮤니티 앵커 육성 및 활용 방안
 - 다수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등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하여 커뮤니티앵커 조직화하는 방안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여 커뮤니티앵커 조직화하고 통합적인 지역재생 및 활성화를 주도
 - 지역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지역커뮤니티 앵커 활용: 교육, 복지, 환경 등 지역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역의 사안을 협의하는 협의기구화, 지방정부와 공식적 계약을 맺거나 재정지원을 통해 위탁사업 수행

〈지역 커뮤니티앵커의 조직 구성 및 역할〉



▶ 관련연구: 이소영·김상민(2017), 「인구감소지역 정주공간 현대화 및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내용문의: 김상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sangminkim@krila.re.kr, 033-769-9893)

지나호 보기: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공방안(박승규 연구위원) [원문보기](#)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briet@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